

도내 9개 고교 자공고 2.0 지정 추진

〈자율형공립고〉

전북자치도교육청, 심사 기준 통과한 학교 모두 추천... 교육부, 선정 결과 이달 말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9개 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이하 자공고 2.0)' 지정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공고

2.0' 신청학교 9개교를 모두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 사업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로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해 지역의 교육역신을 실현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 학교로는 △양현고 △전주교

△전주순내고 △전주여자고 △군산동고 △정읍고 △김제여자고 △한별고 △진안제일고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추천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전북교육청의 지정·고시를 통해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부터 자공고 2.0으로 운영된다.

자공고 2.0으로 지정된 학교에는 5년간 매년 2억 원이 지원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 2.0 유치를 위해 신청 학교를 적극 지원해 왔다"면서 "지자체, 대학 및 기관이 학교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IB 2차 특강

도내 유초중고 교직원 등 대상 민족사관고 교장 강사로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일 오후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유·초·중·고 교·교향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IB 2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IB 프로그램 운영 확산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열린 이날 특강은 △학교 교육을 계획할 때 풀어야 할 질문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과 중점 △IB 월드스쿨 인증과정 △우리 교육을 글로벌 기준에서 돌아보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민족사관고 박하식 교장이 참여했다. 박 교장은 2010년 경기외고 재직 당시 국내 최초로 공교육에 IB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경기외고 교장과 충남 삼성고 초대교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실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보다 많은 교직원이 IB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브로드도 생중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IB는 학생의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질문이 있는 수업을 목표로 한다"면서 "교사들에게 연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IB 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IB 1차 특강에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450여명이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A중학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라'는 2,000여 명의 교사 탄원서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A 중학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하라"

전교조 전북지부, 2000여명 교사 탄원서 지역경찰서에 제출

A 교사, 학생 간 다툼 해결하려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아동학대 판결시 생활지도 불가... 로봇처럼 처리하게 될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A중학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라'는 2,000여명의 교사 탄원서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 간 다툼을 해결하려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중등 교사가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해당 지역의 경찰서, 검찰지청, 시청에 이 건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도내 선생님들의 탄원

서명을 전달했다. 하루만에 2,000여 명의 교사가 서명에 동참한 것.

특히 작년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이후 개정된 교원지원법에 의해 교육감 의견서는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 반적으로 경찰에서는 교육감 의견서와 지자체 아동복지과 사례위원회 결과를 참작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매우 이례적으로 시청의 아동복지과 사례위원회가(7

월 5일 예정)가 열리기도 전,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교육감 의견과는 다르게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항의하자 해당 경찰서는 외압없이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안이 아동학대로 판결이 난다면 더이상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며 "교사는 두려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작은 다툼도 중재나 화해없이 무조건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로봇처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라오스에 한국 제대로 알릴 기회"

전주대 한국어문학창작학부, 라오스 수파누봉대학 언어학부와 MOA 체결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창작학부는 2일(현지 시각) 라오스 수파누봉대학 언어학부와 현지 한국어교육 실습 및 상호 협약 각서(MOA)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파누봉대학은 라오스 북부지방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북부 8개 지역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한국어문학창작학부 학생들은 7월 1~19일 3주간 수파누봉대학을 방문해 한국어교육 실습으로 수업 교안 및 자료를 만들며 외국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경험을 쌓는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 실습 과정을 마친 학생 6명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한국어교육 실습에는 만학도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예비 교사로 참여했다.

이번 실습에서는 한국어 TOPIK



2, 3급 수준의 수파누봉대학교 언어학부 한국어학과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급반'과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반'을 운영한다.

한국어교육 특성화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한국어문학창작학부 박현진 교수는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라오스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한국어교육 실습은 라오스에 한국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생상형 AI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

장수교육지원청, AI 기반 미래역량 강화 연수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2일 청내 시청각실에서 '2024년 AI 기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관내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교육전문직원, 교육행정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수는 유승오 교장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초청해 생성형 AI 도구와 프롬프트엔지니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부터 개인의 취미생활까지 연계된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추영곤 교육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장수교육이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기전대, 베트남 잘라이성 전문사범대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전주기전대학 KOICA 사업팀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베트남 잘라이성 전문사범대학에서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성과평가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전주기전대에 따르면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진입형) 사업에 선정,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베트남 잘라이성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의 주제는 '베트남 잘라이성 전문사범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소수민족 유아교육의 질 향상'이다.

이에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잘라이성 전문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전공 현장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중언어(베트남어-소수민족어) 교수 능력 향상 프로그램,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성과 평가 회의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잘라이성 전문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20명(소수민족 10명 포함)이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